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3~4/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김성철/개정본)바코드변경판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2	법륜스님의 금강경강의(금강반야바라밀경)	법륜스님	정토	7	숨길따라 가는 길(암도스님)	여산암도	맑은소리맑은나라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총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8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4	명상이 가져다 준 선물:지금 이순간이 내삶의 전부다	조치영	운주사	9	황벽산의 메아리(깨달음의 외길 조사선3)전심법요완릉록 강설	원오 역해	무량수
5	49재와 136지옥:죽은 뒤의 중음세계와 지옥순례	허암	운주사	10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8편 수록 *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잃어버린 행복 찾는 일이 본래 '나' 찾는 일"



행복찾기
덕선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불교교양대 강의 원고와 시 함께엮어
일상에서 마음 바로 쓰는 방법 쉽게 가르쳐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행복을 잃었다면 그것은 곧 "나는 왜 '나'로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불행의 근본 원인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의 본질을 찾는 것은 곧 잃어버린 내 행복을 찾는 일이며, 무명으로 왜곡된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 속에는 잃어버린 행복과 동시에 본래의 나를 찾는 저자의 단상들을 옮겨 놓았다. 저자는 광명 붇다사 주지 덕선 스님〈사진 오른쪽〉이다. 스님은 화엄사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를 읽고 행자 때부터 화두로 삼았으며, 통도사 승가대학과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동화사 통도사 화엄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이 책은 저자 덕선 스님이 은해사 승가대학원서 공부할 때, 재가불자들을 위해 개설한 불교 교양대학 전문반 강의를 부탁받고 준비한 강의 원고와, 그동안 수행하면서 저자 나름대로 수행의 핵심을 잊지 않으려고 써 둔 '바다 찾기'라는 몇 편의 시를 함께 엮어서 펴낸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태고 다듬어서 붇다사 개산 10주년에 즈음해 새로운 법문집으로 출판했다.

책은 저자가 그간 사찰 정기법회 법문과 불교대학 강의 등 불자교육을 해 오면서 느낀 일들을 진솔하고 꾸밈없이 써내려 갔다. 이런 스님의 글을 읽으면 마음에 와 닿는 잔잔한 즐거움과 동시에 쏠쏠한 재미도 느껴진다. 사실 불교의 신행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되어 우리들의 생활을 좀더 밝고 넉넉하게 해 보자는 데 그 뜻이 있지 않을까?

덕선 스님은 이번 책을 통해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상의 마음을 바로 쓰는 방법을 간명하고 쉽게 가르쳐주고 있다. 시로 말해 놓은 '바다 찾기'라든지 '운명과 업' 등은 불자들의 순수한 신심을 북돋아 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교리적 접근을 통해서 바로 알게 하는 매우 요긴한 법문들로 가슴에 쏙 와 닿는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뒷산 울타리로 심어놓은 대나무는 세월만큼이나 잎이 무성해지고, 곧게 서며, 단단해지는데 수행자인 나는 출가했던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고백한다. 책은 '불교예절의 기본 정신' '불교 수행의 시작과 끝' '부처님과 보살' '삼법인' '계정혜 삼학' '우리는 왜 행복을 잃었는가' '운명과 업' '불교와 기독교' '본래무일물' 등 총 9강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 원고들을 모아서 묶어서인지 지상법문을 듣는 느낌이 난다.

▲저자 덕선 스님은?

화엄사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이호준 역)를 읽고 행자 때부터 화두로 삼았다. 통도사 승가대학과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동화사, 통도사, 화엄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광명 붇다사 주지. 마음공부도량 광명 붇다사(https://cafe.daum.net/qneektk028995569)

책 속의 밑줄 긋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나'라는 자의식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로서의 아상과 아집으로 발생하는 고통 또한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쓰게 된 것이 고통의 시작이었으나, 그 고통의 시작인 언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의 길 또한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성(獸性)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성(文化性)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단계는 바로 문화성의 핵심인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단어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언어입니다. 이 '나'라는 언어가 모든 생각의 어머니이며, 내 생사윤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생각을 언어라는 관념으로 진화시켜 왔으며, 언어의 탄생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어가 탄생함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진화의 시간 선상에서 본다면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언어의 발생은 어쩌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언어의 발생이 오히려 인류에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상현실에 살고있는 꿈꾸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당연하고 확실한 것 같은 이 현실을 꿈속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내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존재로서 '나'와 '내 몸'은 흐르는 강물과 같이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연기(緣起)되어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써 '나'와 '내 몸'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팔만대장경 핵심 가르침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네
혜조 엮음/신창호 해탈자 그림
운주사 펴냄/1만5천원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간단하면서도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주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어구를 가려 뽑아, 우리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재미를 주는 삽화와 함께 엮은 책으로, 그림 경전 말씀 세 번째 권이다. 수행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의 지남이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가르침이 한 권 가득하다. 시간 날 때마다, 혹은 매일 한 구절이라도 살펴 읽는다면 삶의 평안과 지혜, 깨달음의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님과 재가불자의 콜라보

엮은이는 스님으로 여러 경전과 논서, 선어록 등에서 출가자나 재가자들이 자신의 수행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뽑아냈으며, 그린 이들은 재가불자들로 여기에 그 가르침과 어울리는 삽화를 그려 넣었는데, 이런 콜라보를 통해 '그림 경전 말씀'이라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느낌의 책이 탄생되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양약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법문은 중생들이 겪는 갖가지 고뇌와 고통을 소멸시켜 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으며, 고통을 불러온 실마리만 제거하면 의외로 쉽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이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더더욱 중요해졌다. "현대사회의 질병과 전쟁 및 여러 자연재해 등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밝은 등불이 되고, 지혜와 용기를 주는 좋은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엮은이의 발원처럼, 이 책에 실린 보석 같은 가르침들이 각자가 처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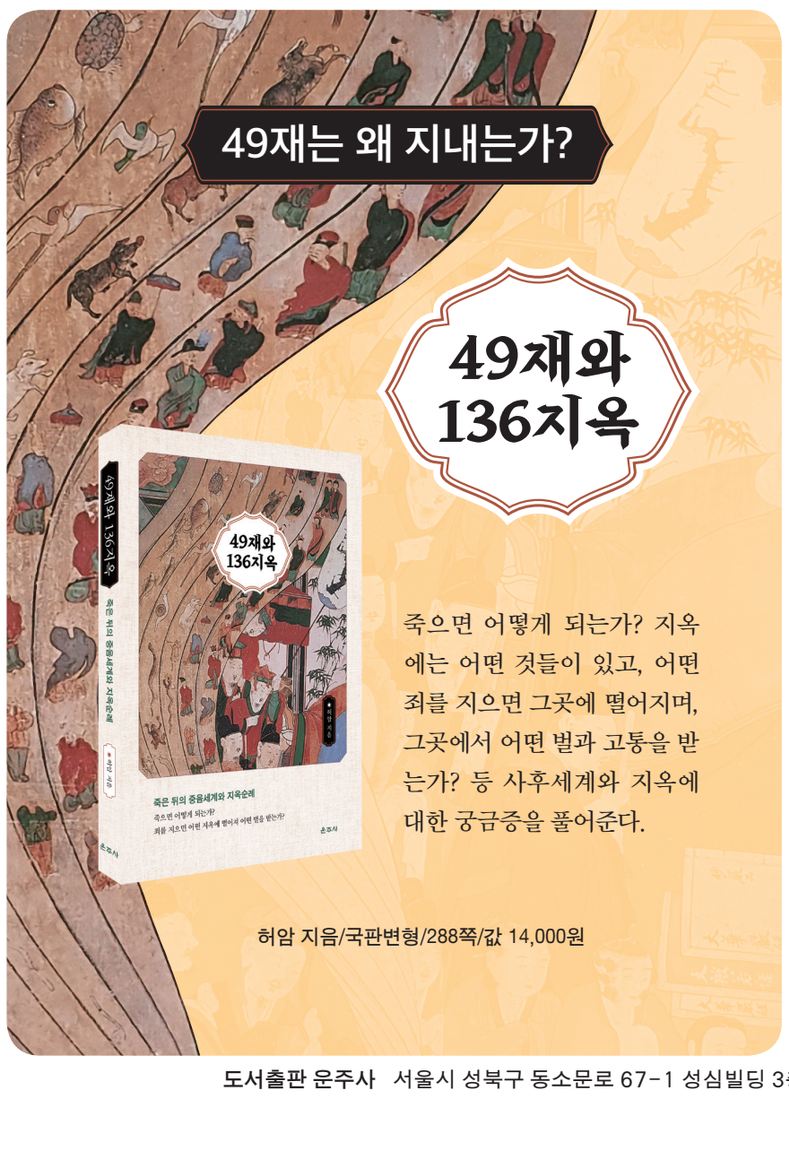
내 삶을 일깨우는 지혜의 등불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리하여 내 삶과 동떨어진 도그마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내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리하여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르침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도 행복한 길이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성찰하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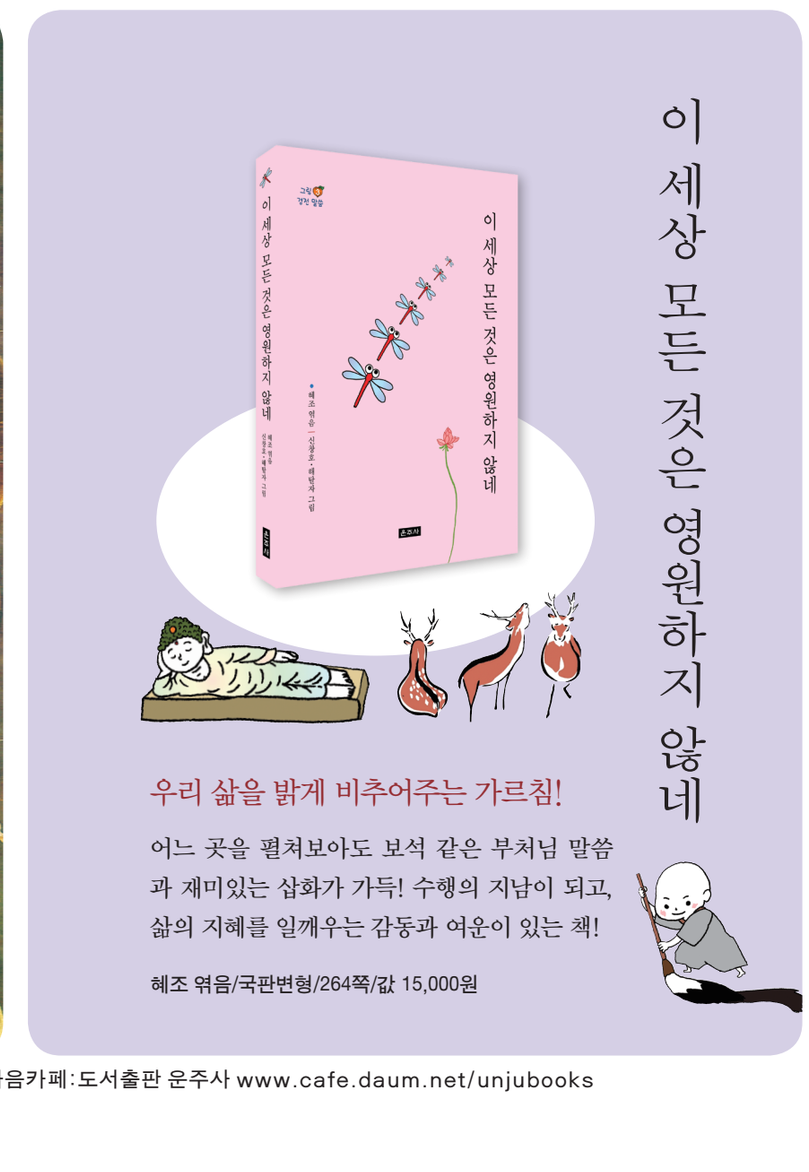
수행길을 깨우쳐주는 죽비

수행은 해탈을 향해 자신을 바꾸는 지난한 노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길고 지루한 수행길에서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추스르며 열정을 되살리는 불씨가 필요한데, 때론 거창한 담론보다 말 한마디면 불씨로 충분할 수가 있다. 여기에 실린 짧은 글들이 인연이 닿은 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